



윤석남 작가 만생명을 나와 들이 이닌 하나로 보는 보살핌의 미학

이윤수 | KBS 방송작가

1,025
한때는 주인의 사랑을 받던 '애완견' 들, 그러나 그들은 버려지는 순간부터 '유기견' 이 된다. 몇 해 전 작가 윤석남은 유기견을 한두 마리 돌보다 보니 어느 틈에 천스물다섯 마리가 됐다는 이애신 원장의 기사를 읽는다. '내체 천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홀로 거두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주인공은 어떤 인물일까?' 작가는 포천 애신의 집을 찾아간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그를 향해 달려오는 스피츠에서부터 시베리안 허스키, 코카스패니얼... 그 무수한 강아지들은 다리가 잘리거나

피부병을 앓는 등 그세 만고풍상을 겪어 병들고 어두운 존재들이었다. 그곳에서 윤석남은 버림받은 개에게 헌신을 다하는 이애신 원장이야말로 유기견들의 마더 테레사라는 생각을 한다. 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화두 삼아온 작가는 개를 돌보는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보살핌의 의미를 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업을 하면서 하염없는 슬픔과 원망의 눈망울을 한 개들, 그네의 영혼을 위로할 따뜻한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무를 자르고 사포로 문지르고 드로잉을 하고 색칠을 하는 열두 과정 속에서 나무 개가 완성됐다. 개 작업을 하는 동안, 어린 날 왜 그렇게 남의 살을 좋아하냐고 물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상처처럼 다가왔다. 작은 생명조차 가벼이 대해선 안 되겠다는 깨달음 속에서 윤석남은 가능하면 고기를 털 먹는 쪽으로 바뀌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지 않게 됐다. 이번 작업은 그만큼 살아 있는 것들을 거두고, 살아 있는 존재들 사이의 상생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는 구도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초대전인 <윤석남 1,025 : 사람과 사람 없이> 전에서 그는 꼬박 5년 걸려 완성한 천스물다섯 마리의 개를 선보였다. 한때는 사람과 살았던, 그리고 지금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사람 없이 살게 된 개들에 관한 이야기다. 30cm에서 1m가 넘는 것까지 크기와 생김새, 표정도 제각각인 나무 개들이 도열해 있다. 관람객들은 소리 없는 통곡으로 바라보는 개들을 통해 생명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돌아보며 자성을 한다.

색깔이 온전한 조각은 그래도 아직 건강한 편이다. 무채색 개들은 많이 아픈 애들이다. 채 그려지지 않은 애들도 있다. 가슴에 구멍이 난 경우도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개들이다. 작가는 이들 하나하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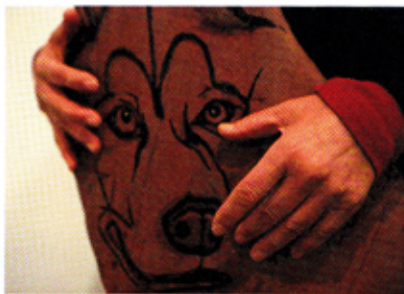


그로부터 석 달 만인 지난 2월에 윤석남은 소격동 학교재에서 <108마리 나무 - 개들> 전시회를 열었다. 이무렵 윤석남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물었다. “백여덟 마리의 개를 전시하셨는데요, 백여덟 마리란 숫자엔 어떤 의미를 담으셨습니까?” 곧바로 작가가 정정했다. “백여덟이 아니라 백팔입니다.” 그랬다. 여기서는 백팔이라고 불러야 옳다.

지난해 천백스물다섯 마리 전시에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고 학대받은 희생당한 개들을 선보였으나 다 풀어내지 못한 미진함이 있었다. 다시 연 전시에선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개들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제를 준비했다. 개의 모습부터 변모했다. 나비와 꽃으로 가득한 꽃밭을 자개를 박아 만들어졌다.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가라는 환생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해탈의 경지에서 새롭게 태어나라는 의미로 연꽃 봉오리에서부터 만개한 연꽃까지 그려 넣었다. 108번뇌를 여의고 해탈하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자 작품도 훨씬 부드러워졌을 뿐 아니라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는 게 작가의 흐뭇한 회고다.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을 지니고 있다는 관세음보살. 여기서 천 개란 고통받는 만중생들을 빠짐없이 도닥일 만큼 많은 자비심의 상징적 숫자다. 운주사에 세워지려 했던 천불천탑도 역시 무

작업을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말을 건넸다.
아무 걱정 말아라, 이제 편히 쉬거라.



한히 많은 불상과 탑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니던가. 불교에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이 가득 찬 상태의 상징이 천(千)이라는 법수다.

늦깎이 작가였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독특한 작업을 선보여온 윤석남은 1996년에 제 8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자가 돼 이듬해 수상 기념 전시회 <빛의 파종>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에서 그는 길이 25cm짜리 나무토막 999개에 각기 다른 한복 입은 여성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그리곤 그들을 줄맞춰서 전시장에 세웠다. 마치 초점을 잃은 것 같은 시선으로 기다림에 지친 모습의 그녀들은 참으로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서 있는 키작은 그녀들은 평론가 백지숙의 지적처럼 “제각각 불상이자 장승이고 미륵이자 숫대이며 인형”이었으며 “작고 보잘것없으나 자기 생명력을 갖고 있는 각각 하나의 세계”였다. 윤석남이 999를 선택했던 건, 순전히 여성의 에너지를 집약해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완벽한 숫자 천을 향한 가능성의 숫자 999. 이어지는 작은 전시실엔 같은 크기의 여성상 하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었다. 그를 합해 1천 개의 목조각이 완성된 것이다. 이 땅에서 익명의 여성으로 살아온 이들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 즐비한 그녀들의 형상은 마치 삶의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기도와도 같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마흔 나이에 그림을 시작할 생각을 했느냐고. 남들이 범상치 않게 여기며 묻는 이런 질문이 윤석남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는 한 번도 나이를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흔여래도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돼 가슴 깊이 접어뒀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공허하기만 했다.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사는 것인지, 내가

누군지 하는 의문들을 풀기 위해 나이 마흔에 그림을 시작했다. 모든 갈증이 그림과 함께 녹아버렸다. 작업에 몰입한 그가 연 1982년의 첫 전시회는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 남편의 권유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

개인 화실을 가지면서부터 어머니를 그렸다. 제재소에서 버린 나무들, 거리에 버려진 빨래판을 주워다 부조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었다. 캔버스 대신 낡은 나무를 택한 것은 나무엔 어머니의 살갓 같은 세월이 나이트로 담겨 있어서였다. 그리고 동양화의 붓으로 인생 굽이굽이에 희생을 강요한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적 폭력의 희생자로서 어머니의 삶, 억눌린 여성들의 소리를 복원했다. 한판의 굵을 치르듯 어머니를 주제로 무수한 이야기 쏟아냈던 작가는 동시대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억압된 여성의 힘을 분출한 것이다. 세상을 힘껏 감싸 안으면서 살아온 여성들을 담은 그의 작품들은 세상의 모든 평범하고 약한 것들을 위로하는 연민의 노래다.

999전에 이어지는 전시에선 하염없이 늘어난 과장된 팔이 선보였다. 작품 속 여인은 그 긴 팔을 내저으며 마치 자신 있게 온 세상을 감싸주는 보살이 돼 있었다. 천수천안의 모습이다. 이 전시회에서 조선의 여성 시인 이매창과 21세기의 작가 자신이 함께 긴 팔을 늘여서 종을 흔드는 작품 <종소리>는 단연 압권이었다. 여성적 삶을 옥죄는 질곡과 싸웠던 옛 여성 선배들과의 연대를 표현한 작품이다. <늘어나다-연>이란 작품은 팔을 늘이고 연꽃을 들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가 폐목 위에 그려진 채 매달려 땅바닥의 연꽃과 대비되는 구도로 화제를 모았다.

마흔에 시작한 그의 작업은 독자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하며 이 나라의 으뜸가는 페미니스트 작업으로 우뚝하다. 올해로 일흔셋, 그러나 실존의 삶,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윤석남에게 여전히 나이는 없다.



작가는 작업을 하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했다고 한다. 이웃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것이 보살핌의 미학을 담은 윤석남 작업의 핵심이다.

보살은 스스로 공덕을 쌓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 활용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삶을 산다. '나'가 아닌 '당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다. 경전에 이르기를 보살은 그 마음이 평등해서 후회하거나 아까워함이 없으며 바라는 과보 또한 없는 존재라고 했다. 관세음, 지장, 문수, 보현, 미륵에 이르는 그 무수한 보살들은 하염없는 자비심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던가. 보살은 그 마음이 평등해서 후회하거나 아까워함이 없고 바라는 과보가 없다고 했다.



나고 자라면서 불교와의 종교적 인연은 없었으나 불교는 합리적인 종교이자 꼭 한 번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철학이라고 믿는 윤석남 작가의 삶은 그러나 놀랍게도 '불교적'이다. 측은지심으로 만중생을 위해 마음을 내고, 자비심으로 다독이고 거두는 보살의 삶을 살고 있는 덕분이다. 그이는 세상의 살아 있는 것을 향해 하염없는 연민으로 손을 내민다. 버려진 빨래판과 판자들이 그의 손길을 거쳐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한 진혼으로 형상화됐던 것처럼, 이번의 개 연작들까지 일련의 윤석남 작품의 핵은 '보살핌'과 '치유'다.

그런 연유로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숨이 멎을 것 같다고들 한다. 그저 담담하게 그려진 듯한데 보는 사이에 가슴이 더워지고 눈물이 핑 돈다. 하찮고 가난한 내 삶을 따스롭게 다독이고 위로하는 손길이 느껴지는 때문이다.

그저 나무토막이던 것을 윤석남이 붙들고 앉으면 생명이 된다. 그것이 여인의 얼굴이거나 개의 형상이거나 그들의 생명과 마주하고 호흡하며 작가는 한없는 즐거움 속에 잠긴다. 윤석남은 그렇게 탄생한 전시장의 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들에게 충분한 위로라는 건 불가능하겠죠? 버려진 개들을 위해 앞으로도 개를 주제로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작업들이 상처받은 생명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전 훗날 죽음 뒤에 아무것도 남고 싶지 않아요. 온갖 생명들에게 자비 베풀면서 저를 다 소진하고 싶어요. 다 불태우고 흔적 없이 떠나는 일...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죠?"

전시회가 끝난 직후부터 이제껏 작가 윤석남은 아침에 작업실로 출근해 저녁 9시까지 불박이로 틀어박혀 작업에 몰입 중이다. 오는 6월 부산의 김재선 갤러리와, 오는 9월 일본 가마꾸라 갤러리에서 108마리 개의 진혼제는 계속될 것이기에. ■